

집편 회학어선조

# 한글

사람마다 하여금  
 수이 익혀 날로 쓰는  
 에 편하게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 세종대왕 —

## 차 목

새해의 명세	조선말 임자씨의 토	마춤법에 대한 실지적 관찰	朝鮮語讀本卷一 指導例	증등 조선말본 길잡이	물음과 대답	字母의 이름	한글 新綴字의 良點과 缺點	朝鮮 歷史 講話	한글 研究 圖書 解題	한글 바루잡아쓰기 익힘	朝鮮語學圖書展覽會 記事
李 克 (1)	宋 柱 (2)	沈 宜 (4)	崔 鉉 (8)	金 培 (11)	金 南 (14)	蔡 廷 (15)	方 鉉 (18)	方 鉉 (20)	方 鉉 (23)	方 鉉 (26)	方 鉉 (26)

第三卷 第一號 (一月號)

七 錢

# 한글마춤법 통일안

定價 二十錢

半千年 以來 아직 整理 未되었던 우리글을 朝鮮 語學會에서 비로소 마춤법(綴字法)을 完成하였다. 全 民族이 統一하게 쓸 표준글은 반드시 이것에 말미 암을것이다.

# 중등조선말본

菊判 二百頁  
定價 八十錢

# 大好评·再版

- ◇ 初有한 標準朝鮮語文法書
- ◇ 最良의 朝鮮語文法 教科書
- ◇ 朝鮮語研究의 基礎知識書
- ◇ 著者數十年 專心研究要領

朝鮮語學會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은 基準한 文法이다. 무릇 朝鮮語에 뜻둔이 는 누구든지 배우라 읽으라.

# 周時經先生遺稿

定價 一圓

한글 研究의 開祖 周時經 先生의 遺著인 國語文 典音學、國語文法、말의소리를 合本하고, 또 先生의 傳記 및 肖像을 넣은것이니, 先生 一代의 面影을 이 책 한편으로써 볼수 있다.

# 한글歷代文選

定價 一圓

訓民正音 以後 現代까지 重要な 文獻을 特選한것 으로, 우리 語文 研究에 不可缺할 寶典이다.

# 訓民正音原本

寫眞銅版  
定價 二十錢

世宗大王 御製 訓民正音을 寫眞版으로 縮刷한것 이다.

세 명의 해 새

한해를 지내 고서  
 한해를 다시 맛아  
 한글의 결음결이  
 한결음또한결음  
 한결같이 나아가  
 한겨레한뜻한말  
 한글으로 모이네

\* \* \* \* \*  
 \* \* \* \* \*

날 첫 달 첫

訓民正音 創制 (世宗 二五年)	四百九十二年
龍飛御天歌 (世宗 二七年 命撰)	四百九十年
訓民正音 頒布 (世宗 二八年)	四百八十九年
月印千江之曲 (世宗 二九年 命撰)	四百八十八年
訓蒙字會 (中宗 二二年 崔世珍著)	四百八年
訓民正音圖解 (英祖 二六年 申景濬著)	一百八十五年
諺文誌 (純祖 二四年 柳僖著)	一百一十一年
漢城周報 發行 (高宗 二二年)	五十年
예수성교전서 刊行 (예수장세 一八八七年)	四十八年
公私文 朝漢文 交用始 (高宗 三一年)	四十一年
新訂國文實施件 (光武 九年)	三十年
國文研究所 韓國學部 (光武 十年)	二十九年
國語文典音學 刊行 (隆熙 二年 周時經著)	二十七年
大韓文典 刊行 (隆熙 三年 俞吉濬著)	二十六年
말모이(辭典) 編纂 朝鮮光文會 (大正 四年)	廿一年
朝鮮語學會 (前名 朝鮮語研究會) 創立 (大正 十年)	十四年
雜誌 新綴字法 實行 東光 (大正 十五年)	九年
한글 創刊 (昭和 二年)	八年
朝鮮語辭典編纂會 發起 (昭和 四年)	六年
普通學校 教科書 改正 諺文 綴字法 施行 (昭和 四年)	六年
한글 續刊 (昭和 七年)	三年
新聞 新綴字法 實行 東亞日報 (昭和 八年)	二年
한글 맞춤법 등 일안 發表 (昭和 八年)	二年
朝鮮語學 圖書 展覽會 (昭和 九年)	一年



6818044

조선말  
자씨의 토

(一)

이  
구  
로

# 조선말

## 1. 먼저 알것

1. 조선말에 과학의 힘이 다 미치지 못한 곳이 많아서 아직 말본(語法)의 터가 다 잡히지 못한 것은 우리의 다 아는바어나와, 이 문제를 푸는데에는 많은 학자의 힘을 빌어야 될것이다. 그런데 옛해 전에 조선 어학회에서 조선말본의 터를 닦고 여러 사람이 가치 힘쓰다가, 철자 통일안을 맨들기에 바빠서 이 말본 문제는 그만 중지가 되었다. 이제 내가 쓰는 이 문제는 그때에 맨들여 두었던것인데, 이제 조금 닦아서 내어놓는 뜻은, 한쪽으로는 조선말을 연구하시는 여러 분에게 한 참고가 될가 하는것이며, 다른 한쪽으로는 조선말을 배우고 가르치는대에 도움이 될가 하는것이며, 또 다른 한쪽으로는 한글 철자 통일안의 원칙에

토는 관계가 있는 그 옷 말에 붙이어 쓰기로 하였은 즉, 토 권치를 조사하여 씨끝(語尾)의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것이다.

2. 조선말 토 처리에는 세가지 태도가 나타났다. 첫째는 토를 모두 떼 씨(品詞)로 잡은이도 있고, 둘째는 입자씨(主語) 밑에 토만 떼 씨로 잡고 풀이씨(用言) 밑에것은 씨끝(語尾)으로 잡은이도 있고, 셋째는 토를 모두 씨끝으로 잡은이도 있다. 이 세가지 생 각이 나타난것을 살펴본다면, 첫째 토를 모두 떼 씨로 잡은것은 씨가름이 없이 췌오던 조선말을 처음으 로 가르고켜 하니, 자연히 잔칼질이 있을것은 피하기 가 어려운 생각일것이다. 둘째 입자씨 밑에 다만 씨로 잡은것은 풀이씨를 토를 떼어놓으면, 그 뜻을 입 자씨처럼 잘 알아 볼수가 없다는것이다. 셋째 토를 모 두 씨끝으로 잡은것은 토와 관계된 그 옷 말을 잘 라놓는다면, 토 케 스스로는 입자씨 밑에것이나 풀이 씨 밑에것이나 다 케 홀도 실 힘이 없는것은 꼭 같 다는것이다.

그러고 우리가 참고로 알아들것은 조선말과 같은 겨 레에 붙은 우랄, 알타이말들—몽고, 만주, 핀란드, 에스 토니아, 발발이, 토이기, 흉아리말들—의 말본을 본다면, 입자씨 밑에 오는 토도 다 씨끝으로 잡았는데, 핀 렌드말에는 열 다섯 격(格)이 있고, 에스토니아말에는 열

여섯 개의 있다. 이 말들의 격들을 사양말로 번역한다면, 물론 전치사(前置詞)들을 쓰게 된다.

3, 임자씨 밑에 쓰이는 이케 조선말의 토를 내딛에는 그렇게 빠짐이 없을만큼 모았다고 생각하며, 이케 그 직접 체계에 관계된것만 말하지 아니하고, 토를 똑똑히 알으키기 위하여, 임자씨의 받가지(接尾語)와 불완전한 어찌씨(副詞)와의 본보기를 얼마식 들어 보인다.

또 토를 쓰는대에 큰 관계가 있는 도움줄기(補助語幹)를 말하려 한다. 모든 풀이씨(어명씨, 움죽씨)에 「기」를 붙여서 이름씨를 맨들고. 또 모든 이름씨에 「이」를 붙여서 풀이씨(어명씨)를 맨드는것이 큰 법이 되나니, 이것은 글월(文章)을 짜는데 말본의 필요로 다만 겉으로 씨의 몸 바꾸인것이요, 속뜻은 본래 그대로 있는것이다. 보기를 들면,

살기가 좋다.  
히기는 눈과 같다.

충신이요 명장인 이순신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가 모든 이름씨 밑에 붙어서 풀이씨가 되는것, 여래까지 이렇게 풀어본 일이 없었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좀 자세히 말할 필요가 있다. 이름씨와 풀이씨의 긍정(肯定)과 부정(否定)의 끝을 보아도 잘 알수

가 있나니, 보기를 들면, 움죽씨와 어명씨의 긍정에는 말의 줄기에 바루 씨끝(語尾)이 붙고, 부정에는 부칭사 「아니하다」가 따루 쓰인다. 이름씨가 풀이씨로 쓰일 때에는 「이」가 붙어서 먼저 풀이씨의 몸으로 바꾸인 뒤에 긍정에는 거기에 씨끝이 바루 붙고, 부정에는 「아니다」가 따루 쓰인다. 보기를 들면,

말이 간다      가는 말  
말이 가지      가지 아니하는 말  
말이 크다      큰 말  
말이 크지      크지 아니한 말  
말이 크지      크지 아니한 말  
말이 동불이다      동불인 말  
말이 식불이      식불이 아닌 말  
말이 아니하다      아니하다

4, 갈말(術語)을 조선말로 써 지은것은 조선말본의 체계를 풀어 말하는데에는 한문자(漢文字)보다는 씩나은 점이 많은 까닭이며, 또 우리가 생각할것은 어느 과학을 물론하고 갈말은 그 과학자가 일부러 짓는것이 원칙이다. 갈말을 지을 때에 한문의 버릇으로 다섯자박이나 일곱자박이 귀글을 짓듯이 꼭 글자 수를 맞추어서 짓는것은 조선말에는 너무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말이 생긴 그대로 한 소리딩이로 된것도 있을것요, 또 여러 소리딩이로 된것도 있을것이다.

# 마춤법에 대한

## 실지적 관찰

赤余公普 宋 柱 星

우리들의 통일 보급의 기운은 바야흐로 짙어가는 가  
을빛과 같이 이 강산 골골이 스며 들어가는 반가운  
형상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앞길에 광명이 비취어  
질 서증이다. 이에 온 천하 대중은 다 가치 뜨거운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릇 일과 문에는  
양면이 있어 밝는 곳에는 의태이 어두움이 따르는 것  
이라 하나, 이 오직 몇몇한 자연의 이세로만 볼 것인  
가?

오늘날 우리 글 통일 보급에 덮어놓고 반대하는 무  
리들이 있음은 참으로 아까운 일이다. 그들은 가진 수  
단으로 반대하는 남아에 요즘은 각 학교에까지도 손  
을 뻗히려고 반대 성명서를 돌리고 있다. 그리고 일  
방 「청음」이란 기관지로 더욱더욱 자가모순의 행동을 감  
행함은 실로 과심하다. 더욱이 그들 가운데에는 모교  
학교 교무주임 김 모라는 교원이 섞이어 있음은 볼

때 더 한층 놀람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언행은 이미 세상에 용지 못함이 자판된 것  
이니, 그의 존재가 비록 무의미하다 할지나, 교원으로  
서 운운하고 있음에는 같은 처지인 필자로써 그치 있  
을수 없게 할뿐 아니라, 혹 기약 못한 벗이 있어 의  
념을 품을가 하여, 전기 김교원의 소론에 의지하여 이  
를 비판하며 아울러 마춤법이 아이들에게 절대로 어  
렵지 않고 도리어 체계 여긴다는 사실을 실체적 입  
장에서 이를 비중고쳐 하는바이다. 그분이 이설(異  
說) 기관지 「청음」에 말한바를 추려보면,

첫째 조선어 과목이 본래 중요한 과목이 되지 못  
할뿐 아니라... 철자법의 개정으로 그 존재 가치에 미  
약의 도를 더하여 구축을 촉진시킨다 운운하였다.

실지 교육에 당하는 자로서 이런 무책임한 말이 나  
을 것인가? 조선사람된 케 스스로가 조선어를 경멸히  
보는 문구를 썼으니, 이 무슨 그릇된 뜻인가? 철자  
의 개정으로 미약의 도를 더하다니 될 말인가. 과학  
적 체계가 확립하므로써 영원한 발전을 보일것을 모  
르는 말이다. 통일안에 의지하여 지은 「중등말본」이 세  
상에 나자, 각 학교가 케 먼저 교과서로 쓰는 사실  
을 똑 바루 볼것이다.

들재로 이분은 마춤법에 의지한 교과서대로 교수는  
하여도 모르고 가르쳐도(?) 모르게 배우니, 학문이라

는 법에서 보면 결국 알지 못하는 것 노력이겠지요  
은은하였다.

나는 이 말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든지 반박하고 싶  
다. 대체 가르치는자는 먼저 가르칠 교재에 대하여 개  
릴 법이 없게까지 능통하며, 또한 교수법이 좋아야 비  
로소 교수에 목적을 달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아  
이들의 불성직을 말하기 전에 우선 제의 교수법이 완  
전하였는가를 도리켜 보아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이들의 불성직만을 탓한다면, 이는  
제 책임을 아동에게 옮기려는 자기의 변변하지 못한  
을 나타내는것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분의 관  
찰과는 전혀 상반되는바를 다음에 예증하겠거니와, 마  
춤법은 철대로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는다. 도리어 예  
컨보다 더 잘 깨닫는다는것을 말하여 둔다.

셋째로 이분은 교과서식 맞춤법과 우리 민간 맞춤  
법과는 아주 다른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나, 이는 크  
게 그릇된 인식이다. 양자는 개칭의 취지와 및 내용  
이 일치한다고 할것이다. 다만 교과서식은 표음적 표  
기법이 철저히 못한데 관련하여, 민간의 그것보다 흥  
바침 하나를 채용하지 못하므로써 말본으로의 정리 확  
립이 철저히 되지 못한 점뿐이다. 모름지기 교육자로서  
는 이 점을 잘 알아들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그런  
데 흥바침을 교과서에는 채용하지 않았으나, 이것은 두

말없이 썩야 옳다 함은 이미 세상의 정론으로 된 것  
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교과서 편찬에 직접 관계  
하고 조신어에 뜻을 두는 권총독부 편수처기이던 권  
도(田島)씨에게 의견을 물은 일이 있다.

씨는 말하되, 언어는 일정불변하는것이 아니다. 따라  
서 말을 적는 글도 그적는 법이 변천되는것이라 하  
며, 자기 개인으로서는 흥바침을 채용한다 말함을 들  
었다. 그리고 씨는 민간 맞춤법이 제일 나은것이요, 교  
과서식은 그 다음이라 말하며, 지금의 교과서식 맞춤  
법이 이상적이 아니라는 뜻을 암시하는듯하였다. 사  
실을 이 기회에 말 하여 둔다.

이상은 오직 이설(異說)에 대한 반박만을 피하였다  
마는, 본시 반박만에 한하려함이 아니요, 그보다도 나  
의 실제 교수에 비추어 새 맞춤법이 아이들에게 더  
욱 깨닫기 쉬움을 밝히어, 짐씨 소론에 대응하여 실  
지적 반증을 들어, 일반의 참고에 이바지하려 하는바  
이다.

대저 맞춤법에 있어서 처음 당하는자로서 제일 어  
렵다고 보는 점은 바침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우  
리글의 바침은 한가지 특징이 있음이니, 그것은 기  
이, 또는 ㅅ ㄷ ㅈ ㅊ ㅎ들이, 바침으로 쓰일 때에  
는 그 끝소리가 다 같은 침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  
이들을 가르침에 당하여 각기 경우에 따라 바침을 쓸 말

에 어떠한 바침이 오는지를 알게만 한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다. 그런데 나는 정당한 바침을 찾아 쓰게 하는 한 방법으로 임자씨(體言)에는 『이』 『에』 『을』 …… 폴이씨(用言)에는 「는다」 「으오」 …… 들의 토가 붙게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기계적으로 알게 하여 둔다. 다음 실시 교수의 일단을 그대로 적어 보건대 (폴이씨인 경우)

선생. 『네이들 이것(스)이 무슨잔지 아니?』

생도. 『지웃자야요!』

다.

선생. 『그러면 오늘은 스 바침이 붙는 말을 배일터이다.』

떻게 나겠니?』

생도. 『스…………… 하는 소리야요!』

선생. 『곧 소리는?』

생도. 『웃』이야요!』

선생. 『그러면 네이들 또 하나 알아 보아라. 잃었던

면필을 도루 찾는다고 말할케 『찾』이라고 쓰려면

어떻게 적겠니?』

생도. 『차에다 사해요!』 (나의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고, 곧 추이요하는 대답을 보나, 일부러이

떻게 가정한다)

선생. 『오! 그러나 그러면 여려의 이애 대답의 옳은

가 생각해 보자?』

선생. 『무슨 바침인지를 아는데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지?』

생도. 『아래 오는 토가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선생. 『그러면 『찾』에는 무슨 토가 붙겠니?』

생도. (커기마다 『이, 에, 을, 는다, 으오』를 외어보다가)

『는다, 으오가, 붙어오!』

선생. 『그러면 아까 말한 바침이 옳니?』 하기도 전에

생도. 『스 바침이야요!』

선생. 『스 바침은 틀리니?』

생도. 『비!』

선생. (확실히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반문을 계속

한다)

『왜? 스를 붙여도 「찾」(말소리)……………는다 되지 않

니?』

생도. 『그러나 『으오』를 붙여보면 『차스오』가 되니까,

안돼요!』

선생. 『그렇다면 『으오』를 붙이지 말고, 즈오를 붙이면

『차즈오』로 되니 그만 아닌가?』

생도. 『그러면 또 『는다』를 붙여보면 『차는다』라고 하

게 되게요?』

선생. 『그러면 꼭 스 바침이 맞았니?』

생도. 『비! 꼭 그것야요!』

선생. 『옳다! 참 잘 알았다. ……』



임자씨인 경우에도 역시 같은 방법이니, 간단히 보기를 들자면,

선생. 『너이들 일몰을 또 무엇이라고 하는지?』

생도. 『낮이라고 해요!』

선생. 『낮이라 어떻게 쓰겠니?』 (여기까지는 권과 같

이 취급한다)

생도. 『나에다 으음 해요!』

선생. 『나에다 으음 해도 되지 않니?』

생도. 『이』에 으음... (으음) 도를 붙여보면, 『나시』 되니까 그

렇지요!

선생. 『그때엔 『나치』라 쓰면 좋지 않니?』

생도. 『안돼요!』

선생. 『왜?』

생도. 『그저 『낮』(말소리)해 본다면 『나』가 되게요?』

선생. 『그러면 으 바침이 옳니?』

생도. 『네!』

따라서 낮(鎌) 낮(晝)의 적은 법을 붙어도, 그와 같

이 일일이 가르치기도 권에 저질로 다 아는 것이다.

나 권들 거듭바침인 경우도 조금도 다를것 없다. 이상은 현재 내가 말은 이학년 아이들에게 교수한 실례(實例)다. 三...六년 생도에게야 말할것도 없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뒷날 글 적기 시험을 하여

도 거반 다 바투 적는다. 이상 나의 가르치는 방법이

이 이상적(理想的)이라고는 나로서 생각지도 못함이니,

보다 나은 방법으로 한다면 얼마나 더 잘 가르칠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변변치지 못한 교수에 의하여도 이학년 정도

도로 재미스럽게 쉽게 깨닫는 사실을 보라! 케게 싫

다고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짓을 핑계로 마

춤법을 공연히 반대하는 무리들은 스스로 사회에 대

하야 죄악을 범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로써 나는 새

마춤법이 아이들에게 질대로 어렵지 않음뿐 아니라, 도

리어 그전보다 이해가 빠르다는 사실을 실지적 입장에

서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음은 공연한다. 하물며 중등

이상의 정도에 이르러! (끝)

◇ 實 際 教 育 에 當 務 하 신 先 生 諸 氏 에 게

을 가르치실 때에 교수방법에 대해하나, 혹은 교단에서 친히 경험하신것이어나, 어떤것임을 물론하고 써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본지의 독자는 대다수가 현재 교직원임을 알아주시오.

指導例

京城師範學校 沈宜麟

一、教材。『四十五, 멀고먼 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끼리를 다리고 왔을 때에, 사람들이 이르러 다투어, 이 이상하게 생긴 짐승을 구경하려 갔소. 구경군 중에는 장남도 세사람이 이것소.

「코끼리 코끼리 하고, 다들 떠드니, 코끼리란 것은 대체 엇더케 생긴 것인가」

하고 세 장님들은, 눈으로는 볼수가 없스닛가, 각각 손으로 코끼리 몸을 더듬어보았소.

맨먼저, 허리통을 더듬어본 장님은 말하기를,

「코끼리란 것은 바람벽 같치 생겼구려」

그 다음에, 다리를 더듬어본 장님은 말하기를,

「아니오. 코끼리란 것은 기둥 같치 생긴 것이

오」

세째번 장님은 말하기를,

「아니 아니, 그리치 안소. 코끼리란 것은 큰구

렁이 같치 생긴 것이오」

셋째번의 장님은 코끼리의 어디를 더듬어보았소」

二、教材觀。文學的 教材로 보는데, 장님들이 코끼리를 더듬어보고, 다 각각 다르게 가진 概念에 對하여, 興味잇는 點을 맛보이고, 말아서 質은 經驗一部分의 知識을 가진자는 그 장님들과 五十步百步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本教材는 佛典 物語中에서 取한 것 같치 보인다. 옛적에 印度에 智慧王이라 일컫는 자못 聰明한 大王이 비웃기 잘하는 한 大臣을 訓戒하여, 無智한 것을 깨닫게 한 이야기인데, 普通 平凡한 사람은 커 장님들과 別로 다를 것이 없다 는 것이다. 即 如 干한 修養을 쌓치 안코는 決코 아는 處할 수가 없다 는 것을 가리켜 주는 教材다.

1, 文... 먼 나라에서 코끼리를 처음으로 다러왔을 때 구경군중에 장님 셋이 더듬어보고, 다 각각 質은 경험으로 알지 못하는 웃은 말을 하여, 우리를 깨우쳐주는 뜻을 쓴 글이다.

2, 코끼리 觀念... 인도나 아후리가 같은데 삼림이 나 들에서 사는 룯지의 동물로 가장 큰 짐승이다. 큰것은 키가 三메돌 六十센치나 되고, 무게가 三千 二百키로구람이 넘는다 한다. 몸에 털이 적고, 눈이 비교적 적다. 코는 둥글고 길게 생겼는데, 긴 코는 거친 二메돌반이나 된다 한다. 이 코는 사람의 팔과 같치 자유로 놀리며, 또 그 끝

에는 뺏겨진 살이 달렸는데, 사람의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든지 집을 수가 있다. 옷 턱에는 문치라 하는 이가 길게 좌우로 뻗어나왔는데, 이것을 상아라고 한다. 코끼리는 청질이 온순하고 귀운이 만코 나무보이나 곡식 같은 것을 먹음으로, 사람이 붓들어다가 소처럼 길러서 밭도 갈리고 집도 실리고 타기도 한다. 오래사는 것은 百二十살이나 산다 한다.

3、插畫…… 큰 코끼리가 있는데, 지금 장님 셋이 모다 이것을 더듬어보는 모양이다. 한 장님은 허리통을 더듬어보며, 바람벽 같다 하고, 한 장님은 뒷다리를 더듬어보며, 기둥같치 생겼다 하며, 또 한 장님은 코를 만져보며 큰 구렁이 같다 한다. 눈으로 코끼리 친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만져본 것만 가지고 코끼리 친체로 생각한다. 두 장님은 갓을 쓰고, 한 장님은 항건만 썼다. 땅을 두들기며 길을 찾는 지팡이도 보이 노였다.

4、新語…… 멀고먼, 처음, 코끼리, 다루어, 이상하게, 짐승, 구경꾼, 대척, 각각, 더듬어, 맨먼치, 허리통, 바람벽, 기둥, 구렁이

5、新字…… 멀, 먼, 처, 끼, 때, 투, 상, 진, 정, 군, 중, 란, 처, 케, 불, 업, 스, 각, 손, 몸, 들, 앓, 맨허, 통, 본, 벽, 젓, 러, 젓, 령

6、發音…… 멀고먼, 처음, 사람, 이상하게, 장님, 업스닛가, 말하기를 (左便의 點은 去聲 又は 長音을 表示한 符號)

7、參考…… 盲人과 象 (大澤文章著 佛典物語 意譯)…… 옛날에 自稱 知慧王이라 하는 가장 聰明한 大王이 잇섯다. 말아서 臣下의 大臣들도 또한 相當히 賢明한 人物들이 모였섯다. 王은 그 聰明한 智慧를 利用하여 크게 仁政을 베풀어 人民을 깃부게하여 주고키 하였스나, 만은 百姓들 가운데에는 혹 不足하다는 말을 하는자가 아조 업달수는 업섯다.

어느때 비웃기 잘하는 大臣 하나가 王앞에 나가 가서, 아모 생각업시 「大王님, 大王님께서는 智慧가 만라하사 될수 잇는대로 善政을 베푸시는데, 國民中에는 間或 不服을 말하는자도 잇스니, 엇더케 생각하십닛가……」 하고 엇주었다.

知慧王은 「응, 이놈이 웃은은 말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드니 「이問題에 對하여 解決을 알러거든 王都에 잇는 盲人을 모다 모아 오너라」 하였다. 大臣은 이상히 여기면서도 大王의 命이라 數百의 盲人을 모아들었다.

大王은 다시 「여러 臣下들을 불러서 구경하게 하라」 하야 盲人과 群臣들을 넓은 뜰에 모여들게 되었다. 知慧王은 「이번에는 數百의 코끼리를 끌어다가, 그

盲人 옆에 늘어 세우라」하였다.

여러 群臣이며 大臣들은 「엇던 智慧를 내시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大王은 盲人들더러 「너의들 앞에는 이상한것이 잇다. 앞으로 나가서 꼭 붙잡고 잇거라」하였다.

盲人들은 大王 말대로 더듬어 나가서 붙잡히는대로 꼭 붙들고 잇다.

智慧王은 嚴格한 語調로 「너의들이 붙잡고 잇는것은 코끼리라 하는것이다. 엇더케 생겼는지 차례차례로 말하야보아라」하야 盲人들에게 對答을 시켰다. 코끼리코를 잡은자는 「大王님 코끼리는 구렁이 같치 생겼습니다」

코끼리의 잇발을 잡은자는 「빨갈치 생겼습니다」

허리등을 만진자는 「바람벽 갈치 되었습다」

다리를 밟는자는 「아니오 기동갈치 생겼습다」

머리등을 더듬는자는 「독과 갈치 생겼습다」

귀를 밟는자는 「아니오 키와 갈치 생겼습다」

코끼리의 꼬리 끝을 붙잡은 장님은 「모다 틀립다」

코끼리란 비와 같치 생겼습다」하야 여러 盲人들의 對答은 다 各各 달라치, 모다 다른 사람의 말은 틀리고 自己의 말만 올라고 하얏습다. 즉 적은 經驗으로 얻은 知識은 코끼리 全體를 理解 不能합니다.

不能합니다.

이 모양을 구경하든 大臣이며 群臣들은 拍掌大笑

들을 하고 잇는데, 智慧王은 이 群衆의 웃음을 멈추게 하고 「諸公等은 何 모양을 보고 웃지만, 何 盲人들과 五十步 百步로 別로 다를것이 없을줄안다. 같은 사람으로도 얼굴이 다 각각 다른것과 같

치 身體의 美醜強弱, 마음의 善惡邪正, 感情의 冷溫厚薄 모다 사람을 말아서 千態萬象이다. 엇재서 이와 같치 다른가를 아는 사람은 땅우에는 하나도 없을것이다. 이것은 그만두고라도, 自己의 自身

全體를 實로 아는 사람도 亦是 적을것이다. 더구나 다른 사람의 일이야 더욱 알겠느냐. 諸公들은 無智한 盲人을 嘲笑하기 前에 먼저 自己의 無智

를 깊이 反省하야야 한다. 나는 항상 反省하야야 王者의 盛德을 修養하고 知囊을 기우려 될수잇는대로 仁政을 베풀것만, 지금 말한것과 같치, 여러사람의 性能이 다른기때문에, 한가지 仁政 밑에 잇는 蒼生도 非難을 말하는자가 잇는것이다. 다들 알았느냐」하

고, 特히 아까 그 大臣을 엄숙하게 바라보았다. 滿庭의 群臣들은 拍手를 하며 「참 智慧王이시다」

하고 讚美의 感聲을 들날렸다.

三、指導方法 大要 (五時間 取扱)

1、全文의 讀法 指導……自由讀、試讀、範讀、指名讀

……………(一三頁 下段에 繼續)……………

……………(一三頁 下段에 繼續)……………

# 국문 조선어학사전

김갑이

延專教授

崔鉉培

## 씨갈

(品詞論)

### 첫째가름

### 씨가름

(品詞分類)

낱말(單語)을 그 구실(職能)과 뜻과 꼴(形式)을 따라 갈라 놓은것을 씨갈래(詞의 種別), 또 줄여서 씨라 일컫는다.

구실(職能)이란것은 낱말이 월에 서의 하는 노릇을 이름이니, 곧 어떤것은 월의 임자(主體) 노릇을 하며, 어떤것은 월의 풀이(說明)노릇을 하며, 어떤것은 월의 꾸밈(語飾)노릇을 하는따위이니라. 이를테면

저 사람이 노래한다.

에서 「사람이」는 임자이며, 「노래한다」는 풀이이며, 「저」는 꾸밈임과 같은것이다. 그런데 씨의 갈래를 따라서 그 구실이 일정하여 짤없이 서로 나들지 못하 나니, 이것이 죽히 씨가름의 한 대중(標準)이 될만하 나라.

「뜻」이란것은 일과 문(物)의 이름을 나타내는가, 음주임을 나타내는가, 그 바탕을 나타내는가 하는 따 위이니, 이것이 씨가름의 한 대중이 된다. 이 뜻이 그 대중이 되므로 말미암아 그 씨가름이 빈것이 되지 아니하게 될수 있게 되는것이다.

「꼴」(形式)이란것은 낱말이 그 쓰임을 따라 그 꼴이 일정한 법으로 바꾸힘의 있고 없음을 이름이니, 이런것이 그 낱말의 갈래를 잡는(定하는) 데에 매우 필요한 한 대중이 된다.

내가 씨갈래를 모두 열가지로 가른 질차의 비교적 자세한것은 이 잡지 케오호의 십강(十講)에 말하였은 즉, 여기는 다시들지 아니한다. 그뿐아니라 중등학생에게는 그러한 풀이(說明)는 필요가 없는것이다.

어떻씨(形容詞)는 어떠하냐고 묻는 말에 대답이 될 만한 말들이니,

꽃이 어떠하냐? 붉다.

요이 어떠하냐 요이 푸르다.

산이 어떠하냐? 산이 높다.

이것이 저것과 어떠냐? 이것이 저것보다 낮다.

에서의 붉다 푸르다 높다 낮다와 같은니라.

어떤씨(冠形詞)는 어떤것이냐?의 대답이 될만한말을 이름이니, 이를테면 어떤 옷을 입었더냐? 새 옷을 입었더냐?

어떤 사람이나? 제 사람이올시다. 예씨의 새 귀와 길은것들이다.

어찌씨(副詞)는 어떻게(어찌) 움직이느냐? 어떻게

어떠하나? 의 대답이 될만한 말을 이름이니, 이를테면

그 사람의 어떻게(어찌) 가더냐? 친척히 갑니다. 빨리 달아남테다.

그 꽃이 어떻게 붉으냐? 매우 붉다. 조금 붉다.

예씨의 친척히 빨리 매우 친척히와 같은것들이다.

어떻씨, 어떤씨, 어떤씨가 내용적(內容的)으로만 본다면 무엇이 형용(形容)하는 첨어씨는 다 한가지이다.

그러나 이를 세가지의 씨갈래로 잡은것은 그것들의 월예씨의 구실(職能)과 그에 따른 끝이 다름에 말미

암은것이니라. 어떻게는 일과 物(物)을 풀이하되 항상

상 그 풀이되는 일(物)의 일에 쓰이며, 어떤씨는 일(物)을 꾸미되, 그 꾸미어지는 일(物)의 위에 쓰이며,

어찌씨는, 움직임이나 방향을 꾸미되, 항상 그 꾸미어지는 말의 위에 쓰인다. 또 어떻게에는 그 쓰임을 따라

서 끝이 달라짐 곧 씨끝바꿈(語尾變化, 活用)이 있되,

어떤씨와 어찌씨는 씨끝바꿈이 도무지 없느니라.

어떤씨를 씨의 한 갈래로 잡은것은 가선주시경 스승님의 밝으신 창작이다. 이것을 일(物)을 형용한다 하여

씨 形容詞에 집어 넣는것은 아주 잘못이다. 구구든지

잠심하여 생각해 볼것같은면, 이 세가지의 씨가

서로 같은 동시에 또 서로 같지 아니한 관계를 잘 알아볼것이라고 생각한다.

토씨는 주장으로 임자씨 앞에 붙어서 쓰이는것이다.

그러므로 풀이씨의 씨끝(語尾)은 토씨가 아니다. 토와 씨끝은 화연히 구별해야만 한다.

높다 높으니 높고 높아 또 높음이

의다 으니 고 아는은 따위는 풀이씨의 씨끝이요

사람의 사람도 사람은 사람을 높이기 높기도

높기는 높기를(풀이씨가 임자씨처럼 된것알에 쓰인토)

의 이 도 은 을 따위는 토이다.

옛날에는 한자(漢字) 알에 붙는 조선식 말은 다 토라 하였다. 이를테면

運動하다。最貴하니, 清潔하지 아니하다。

의 하다 하니 하지 따위를 토라 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정리된 말본으로 본다면, 이 따위는 결코 토가 아니다.

곧 운동하다 최귀하니, 청결하지,

의 다 니 지는 씨끝(語尾)이요, 운동하 최귀하 청결하는 씨줄기(語幹)이니라。(음측씨 参照)

### 의 령

#### [한어]

이	이름씨	대	대이름씨
셈	셈씨	움	움측씨
어	어떻씨	잡	잡음씨
어떤	어떤씨	어찌	어찌씨
느	느낌씨	토	토씨







더라도 機械的으로 외면 그만이요, 한번 定한 以上 再考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면, 옛날 그것과 五十步百步요, 『大衆』이란 그도 實地에 있어서 京城 一帶를 指稱함이 되지만 疑問이며, 地方에 따라 『기』, 『모』, 『부』 등 各種으로 읽게 되니, 참 大衆의 不便은 一般이요 지난날의 結果로 된 一代 一部分의 오늘의 犧牲을 염려하여 爲現的 事業을 피하는 것보다 今後 千秋以後 生의 學習 便易에 置重함이 明策 일가 하며, 初學者에게 (教授方法은 別問題로 하고) 『기』의 初聲과 中聲 『ㄱ』와 들 合音하라 하면 『가』라 내지 않고, 『기아』라 하며, 終聲 『기』를 붙이라 하면, 『각』이라 하지 않고, 『가역가역』하고, 또 『시』를 붙이라 하면, 역시 『가웃』이라 하니, 『기』의 『그』와 『ㄱ』와 들 合하여 『가』라 하고, 『가』字에 『기』의 끝소리 『이』를 붙여 『각』이라 함이 容易하고 速覺的이며, 雙音에 있어서도 字形의 構成으로

만 보아, 『기』 雙기역이라 하고, 『비』等은 代名詞로 指稱하는 것보다 『기』, 『비』라 定한다면, 『기』의 初聲 『고』와 中聲 『ㄱ』와 合成하여, 『가』가 되고, ㅂ字 밑에 붙여 作用할 때, 「바우그에(밖에)」가 됨과 같이 一律로 각기 音價를 表示하고 作用까지를 意味하는 이름을 붙임이 理想에 멀고도 가까울 줄 믿습니다. 貴會의 先生 各位시여...: 江湖의 讀者 諸賢이여! 宗을 稱들고서 하는 뜻을 사랑하시고 偏見을 恕燭하시기 바라나이다.

### 한글 新綴字의

#### 良點과 缺點

平壤 蔡 廷 敏  
대커 무엇을 改革하려면, 그 缺陷處를 補充할뿐 아니요, 그 新形이 舊形보다 더 優秀하게 되어야 크게 效果를 들어나는 것이다. 우리 저러에게 복된 한글은 배우기 쉽

을 것 같으면, 「몇」은 「幾」의 새김이요, 「일」은 「日」의 음이 되어서, 二八항에 해당한 것 같이 생각하심은 그럴듯도 합니다. 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몇」과 「일」과의 거듭된 것이라 하면, 그 발음이 결코 「며칠」로 나지 아니하고 「몇날」이나 혹은 「며칠」로 날 것임니다. 이는 二八항의 「발일」이 「바릴」로 소리나지 아니하고, 「발날」로 소리나지 아니하고, 「아릴」로 소리나지 아니하고 「앞일」로 소리나며, 또 「몇이랑」(幾畝)이 결코 「며치랑」으로 소리나지 아니하고 「몇이랑」이나 혹은 「며디랑」으로 소리남을 보아 알 것입니다. 이는 대개 우리말에는 두둑 립한 생각씨(觀念語)가 서로 어우를 적에 그 우의 씨의 바침소리가 마고 그 안의 씨의 첫소리 됨을 막는 동적이 있는 때문이외다. 그러하므로 구대역 「몇일」로 적을 필요 없었습니다. 「일」이 「日」과 소리가 통합한 우연이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二、역사적으로 「표」의 음은 것으로

고 쓰기 쉽고 應用이 넓어 여러가지의 長點은 이루 다 말할수 없다.

그러나 나는 自來로 純漢文으로 된 聖經이나 朝漢文으로 된 聖經은 一切 보지 아니하고, 다만 순한글로 쓴 聖經만 읽어 벌써 三十五年이나 버릇을 들여왔건마는, 무슨 말슴이 어디 있는지 알든 찾기가 어렵고, 또 잠간 읽어 뜻이 잘 나타나지 아니하여 大小 旨 잡기가 여간 困難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글의 한가지 큰 缺陷處이다. 그러므로 한글 新綴字의 奇拔한 字形과 神妙한 字音을 지극히 贊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중에도 나의 생각에는 이 아래 몇가지의 缺點이 있다고 본다. 곧

- 一 「사 자 차 다 라」五行에 ㅏ ㅑ ㅓ ㅕ의 合用을 淘汰함과,
- 二 「나 라 아」三行에 ㅓ ㅕ ㅗ ㅛ ㅜ ㅠ의 混用함과,
- 三 「디 리 티 식」의 廢止함과

같은 것이다. 본시 우리글에 標號가 부족한대다가 設想가상으로 標號를 더욱 滅殺시킨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ㄱ」, 「ㄴ」, 「...」等字의 淘汰도 遺憾되는 일인데, 以上 八行中 廢去 者 混用으로 말미암아 五十字에 八個 바침과 된소리까지 치면 四百餘字가 되나니, 字形이 不同하고 發音이 判異한 四百餘字가 自然 減損하게 됨은 매우 아까운 일이다. 아닐수 없다.

또 朝鮮語學會에서는 말의 語幹, 語尾와 源音, 變音을 잘 분간하여 理想이 극히 高尚한줄 안다. 그러한데 가령

- 一, 개(犬)에는 수개, 암개. 도야지에는 수도야지, 암도야지. 닭에는 수닭, 암닭.
- 二, 이야기에는 글니야기, 옛니야기. 뽕뽕에는 뽕뽕. 솔뽕. 뽕에는 뽕뽕. 집뽕.
- 三, 연전(年前), 연말(年末), 하다가(今年), 명년(明年),

본다면 한자음 「녀」(女) 따의(제四二항)와 같이 다를수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미 「인」으로 대중을 삼아 놓고 보면, 그것이 저 「일」(事) 따의와 큰 다름이 없는고로, 그런것에 특히 한자어 표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곧 「나무인」으로 적을것이라 생각합니다.

三, 당신과 같이 보는것이 주친생(周先生)이래의 해석이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 책에 말한바와 같이 본 까닭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다」와 「라」는 뜻으로 보아 결코 두날의 독립한 낱말이 아니요, 하나는 다른 하나의 준것이라 함이 합당함
- 2, 홀소리 앞에서는 「이다」의 「이」를 줄이기도 하지마는, 옛날에는 홀소리 앞에서도 또박또박 「이」를 썼으니, 이를테면

.....할바이니라  
와 같으며, 오늘에서도 「이」를 결코 줄이는 일이 없는 경우가 있나니, 그것이 밤나무였다(이었다)에서와 같음.

- 3, 오늘날에서 논리(論理)를 또박

이렇게 여러가지로 變化하여 標號만 抹去한것이 아닌가 한다.

또 그밖에 사기(詐欺), 사기(邪氣)도 분간함이 可하고, 초인(超人)도 분간함이 可하고, 천디(天地), 천디(賤地)도 분간함이 可하다. 또 「커」(己)는 自述的이요, 「더」(彼)는 史筆的이다. 聖經에 「다른 사람은 더를 分변치 못한다」하였으니, 이것을 「커」로 쓰면, 自他를 누가 알아 分별하리오. 헐라말에 神도 「누마」요, 風도 「누마」이라, 그 缺陷으로 인하여 지금

까지 異端이 많이 일어난다. 이것 이 우리에게 족히 例證이 되는것 이다. 말은 뜻이 다른대로 꼭 分간하여 쓰는것이 가장 合理的이다. 그러자면 적은 標號로서 어찌 수 많은 말을 다 分간하여 적을수 있으 리요, 朝鮮語學會 諸位여, 以上에 든 八行中에서 廢去한字는 다시 使用하고, 混用한字는 다시 分간할것 이며, 新字形을 더 많이 만들어서 라도 순 한글이 朝漢文보다 勝하게 하시기를 千萬付託한다.

趙憲泳 著 東洋醫藥社 發行

應用 自在 通俗漢醫學原論

定價 三圓 送料 十二錢

- 朝鮮化한 漢醫學
- 科學化한 漢醫學
- 常識化한 漢醫學
- 趣味津津한 漢醫學

醫生、藥種商、醫學徒、療養家は、勿論、一般家庭에서도 반듯이 座右에 備置할 良書。

朝鮮初有의

朝鮮文化 研究 雜誌

震檀學報 第一號

定價 七十錢 送料 六錢

- 三韓問題의 新考察 李丙燾 ▲庶孽差待에 對한 一問題 李相佰 ▲朝鮮詩歌의 一胎生 趙潤濟 ▲朝鮮 古代神의 性에 就하여 孫晉泰 ▲時調의 發生과 歌曲과의 區分 李秉岐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活動 金庠基 ▲風神考 宋錫夏 ▲震檀辨 李丙燾 ▲和蘭船 濟州島 難破記(하델 漂流記)

하게 표시하고커 할적에는 一般으로 呼소리 알에서도 「이다」의 「이」를 줄 이지 아니함.

4. 「이」는 줄기이요, 「라」는 씨끝 이니, 근본부터 줄기는 없고 씨끝만 있 는 풀이씨는 우리말에 없을뿐 아니 라, 다른 나라말에도 없는 것임. 만약 「다」를 별개의 ㅅ음씨라 할것같으면 이것이 나무다. 이것이 나무요. — 나무네, — 나무지 — 나무니

의 「요, 네, 지, 니」파위가 다 「다」의 끝바꿈이 못되고, 다 각각 ㅅ만 씨가 될것이니, 그리함은 일반의 끝바꿈의 풀이에 맞지 아니함. 또 下 — 알, 아래. 上 — 우, 위에. 이와 같이 두가지로 보고 쓴것임나 다. 그러므로 「알」은 「아래」와 같 은것으로 보고 적은것이외다. 물론 만 약 「알」과 「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우」에 「만」을 인정한다면 「알 에」는 「아래」로 고칠것입니다. 그러 나 그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四, 물론 그렇게도 발음되는 일이 있 습니다마는, 대충말(標準語)로서는 「계 폐, 헤, 메」로 삼음이 옳다는것입니다. (최현배)

# 조선역사강화(一) 상고편

## 나라의 시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남으로 한해(瀚海) 조선 서남 바다(西南 바다)까지의 반도와 서북으로 흑수(黑龍江)까지의 큰물을 옛

날에 진(震)이라 하였는데, 아득한 옛날로부터 허다한 미개인(未開人)이 여기저기 흠어져 살아서, 석기(石器) 골각기(骨角器)를 쓰며 어련(漁獵)으로 생업을 삼더니, 지방부터 오천년쯤 전에 석기와 한가지동철기(銅鐵器)를 쓰고, 농업으로써 먹고 살 줄 아는 민족이 서으로부터 차차 등으로 와서, 이 미개인들을 복종시키면서, 지형을 따라서 나라란 것을 세웠습니다.

## 단군왕검께서 나시다

이 진보한 문화를 가진 민족은 이를 을 「박」사람이라 하니, 「박」은 신성이란 뜻입니다.

「박」사람은 본디 천제(天帝)의 자손으로서 컴컴한 인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위로부터 내려온 종족임을 스스로 믿고, 이 신념(信念)으로 부족(部族)들의 사이에 서로 깊은 연락과 단단한 통일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리하는중에 신인(神人)이 태백산(太白山) 가운데 나사,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이름하시고, 신정(神政)으로써 사방을 다스리시니, 이 어

른은 조선 모든것의 시조되는 단군왕검(檀君王儉)입니다. 「조선」은 처음 개명한 곳이란 뜻이요, 「단군왕검」은 하늘의님이라는 뜻입니다.

## 조그만 새나라들

단군왕검이 다스리시는 조선왕조는 대강 일천년으로 계속하였습니다. 이 동안에 「박」사람의 종족이 크게 번연(繁衍)하여, 사방으로 흠어져서 조그만 새 나라들을 만들며, 북에는 송화강(松花江)을 끼고 생긴 부여국(夫餘國)과, 남에는 대관령(大關嶺) 좌우의 예(濊)와, 한강 남쪽의 한(韓)이 그중에 두드러진것입니다.

## 국토가 넓기다

단군의 끝짐으로부터 조선의 국토는 차차 남으로 넓기어서, 대동강 부근이 그 중심을 이루고 이때부터 임금을 기자(箕子)라 일컬으니, 이것이 뒤에 지나의 지자(箕子)로 혼와(混訛)되었습니다.

## 위만이 들어오다

기자시대에는 농업의 재주가 더욱 늘어서 경제의 힘이 크고, 따라서 모든 문화가 훨씬 발달하였습니다. 기자조선은 북으로 육지와 서으로 바다 건너로 지나로부터 이웃이 되었는데, 지나에는 난리가 쉬지 아니하므로, 그 백성이 낙토(樂土)를 찾아 동으로 많이 유이(流移)하여 오고, 또 평시에라도 무역(貿易)의 이익을 취하여 그 왕래가 자못 번거로우니, 이때문에 조선국

내의 여기저기 지나인의 거류지가 생기었더니, 기자 조선의 四邑(四邑) 시칠에 이르러 한(漢)으로부터 망명해온 위만(衛滿)이란 권모가(權謀家)가 국내의 지나인을 가만히 단합하여 궤출한 술책으로써 자자의 도성을 뺏으며, 나라가 마침내 남쪽 한(韓)의 땅으로 옮기어 가게 되었습니다. 기자 조선의 역년은 약 일천년동안입니다.

### 한나라 사사람의 군

이로부터 대동강변에 지나인의 독립한 도시가 생기어서, 여전히 조선이란 이름으로 번영을 유지하다가, 팔십년만에 그 본국인 조선은 한(漢)에게 정복을 당하여 낙랑(樂浪)이란 군(郡)이 되고, 한이 그 여위(餘威)로써 낙랑의 절에 현도(玄菟) 진번(眞蕃) 임둔(臨屯)이란 조선인의 작은 나라들을 억지로 군(郡)을 만든다, 이것을 한의 사군(四郡)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삼군(三郡)은 수십년을 지나지 못하여 도루 그국의 자주(自主)도 돌아가고, 오직 낙랑만이 대동강 좌우 수백리의 땅으로써 수백년동안 지나인의 세력 지대로 있었읍니다.

### 조선의 두 동강으로

낙랑이란 지나인의 거류지가 오랜동안 국토의 중간에 끼어있음은 일변 조선 민족을 남북으로 두 동강에 나누어서, 피차간 언어(言語)와 풍속(風俗)과 문화에 얼마만큼 차

별이 생기는 해도 있었읍니다. 일변 지나의 진보한 문화와 우월한 재화(財貨)가 낙랑을 말미암아 동방 여러 부족에게 유입(流入)한 일도 있었읍니다.

【주해】 진(震) 동방이란 뜻, 해 돋는대란 뜻이다. 오늘날 만주와 반도를 포괄한 넓은 땅의 이름이다.

석기(石器) 상고(上古) 유사(有史) 이전의 시대를 석기시대(石器時代), 동기시대(銅器時代), 금석병용기(金石并用期), 철기시대(鐵器時代)로 잡는다. 지금으로부터 한 二천년쯤 전까지가 금석을 병용하는 시기였다. 석기는 곳곳이 발전되는데, 그 종류는 石斧, 石刀, 石槍, 石鏃, 石匙, 石錐, 石鑿, 石鏈, 石錘 등이 있다.

골각기(骨角器) 짐승을 잡아먹고, 그 뼈와 뿔로 기구를 만든 것이니, 종류는 鐵, 鈹, 鈳, 鈳 등이 있다.

「박」자람 박은 「白」혹 「靛」의 통칭. 부여(夫餘) 서기전 一八六년에 단군의 후손이 북방으로 옮기어 가서 세운 나라.

예(濛) 본디 만주 흥안령(興安嶺) 산맥에 있던 것으로 남하(南下)하여 강원도에 거한 종족.

한(韓) 삼한(三韓)으로 나누었으니, 전라 충청 경기도가 마한(馬韓)이요, 경상남북도 강원도의 일부가 진한(辰韓)이요, 마한과 진한 사이의 것이 변한(弁韓)이다.

위만(衛滿) 연(燕)나라 사람. 서기전 一九五년에 그 나라의 난을 피하여 조선으로 들어오므로, 왕이 서쪽 지경을 지키게 하였더니, 위만이 피란하여오는 현나라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이 커지매, 한나라 군사가 쳐러 오니 들어가 숙위한다 사칭하고, 뉘쳐 쳐서 조선 임금 준(準)을 쫓고, 스스로 조선 임금이 되었다.

# 한글 연구 圖書 解題 (1) 方鍾鉉

訓民正音 一冊 印本

世宗大王 御製

世宗 二十八年 丙寅 (西一四四六) 九月 頒布

실상은 世宗 二十五年 癸亥 十二月에 別히 訓民正

音이라는 名目下에 完成이 되어서, 同 二十六年 甲

子 二月에는 이미 韻會를 번역하였고, 同 二十七年에

는 또 龍飛御天歌를 權躋 鄭麟趾等에게 命하여 訓民

正音으로써 著作하게 하고, 다시 이것을 漢文으로 解釋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다가, 同 二十八年 九月에

야 비로소 完전히 이것을 세상에 發布하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御製 以後로부터 그 發布되기까지에 四五

年이라는 時日을 經過하게 된것은 모두가 時代的 諸

般 事情에 關因한바라고 생각한다.

去年에 朝鮮語學會에서 訓民正音 發布 記念日을 陽

歷으로 換算하여, 十月 二十八日로 定하고보니, 이상

하게도 이 訓民正音과 二十八이란 數와는 무슨 關係

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도 한다. 世宗

大王께서 正音으로 二十八字를 御製하시, 다시 그 二

十八年을 기다려 發布하시었고, 뒤에 이 起原을 二十

八宿說로 論한이도 있지마는, 이번엔 陽曆 換算 記念  
日이 또한 二十八日로 된다는것은 偶然으로서는 자못  
意味가 큰바가 있거나 않은가 한다.

이케 오늘날까지 殘存되어 있는 책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것은 朴勝彬氏 所藏本 및 그 寫眞版과, 月印釋譜  
에 添附되어 있는것과 宮內省本(京城帝國大學 圖書館에  
서 數年前에 寫眞本으로 所藏한바가 있으니, 宮內省印  
이 있다)과의 三種으로 볼수 있으니, 月印釋譜에는「世  
宗御製 訓民正音」이라고 外워있고, 그 밖에는 전혀「訓  
民正音」이라고 名目을 두었다. 모두 十五張으로써 一  
冊이 完了되었다.

이 책에 記載되어 있는 順序에 依하여 간단히 그  
內容을 살펴보면, 먼저 그 御製曰「國之語音, 異乎中國, 與  
文字, 不相流通故, 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라  
하였으니, 이것으로 그 御製의 動機와 眞意를 아울러  
推察할수 있는것이다. 다음으로 그 二十八字中 初聲  
十七字를

牙 ㄱ 舌 ㄷ 唇 ㅍ 齒 ㅈ 喉 ㅎ  
나 누고, 中聲 十 一字를

로 分配하여, 그 個個의 音을 表示하였으니, 그 表示

方法은 아래와 같이 하였다.

ㄱ는 牙音이니 如성君군 ㄷ字중 初중發聲성하니 並 變書성하면 如성蚪蚪字중 初중發聲성하니라

와 같은 形式으로 初聲 十 七字를 順序로 說明하고, 다음에 繼續하여

、는 如성吞吞 ㄷ字중 中聲성하니라 中聲은 가운데와  
、는 吞吞 ㄷ字중 가운데와 소리 마디니라

와 같은 形式으로 十一 字聲을 表示하여 있다.  
다음으로 이 二十 八字의 使用에 關한 法則 후 規  
約이 附記되었으니, 要點만 摘記하면 아래와 같다.

一、終聲復用初聲

訓蒙字會 時代에 이르러, 이 原則을 (一)、初聲終聲  
通用八字와, (二) 初聲獨用八字와의 二條로 나누게 되었  
으니, 當時는 이미 正音 二十 八字中에서 ㅇ와 ○와  
의 混用에 因하여 생긴 『○異擬』字를 한字 使用하게  
되었으므로, 俗所謂反切二十七字라고 하였다, 이 訓蒙字  
會의 使用例가 近代에까지 傳하여온 것이다.

一、○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

이 規約을 遵守한 時期는 극히 短期間이므로, 龍飛御天  
歌、月印千江之曲 其他 天順版에서 찾아볼수 있고, 杜  
詩諺解에서는 전혀 그 殘影도 볼수 없다. 그 歷史的  
考察에 의지하여 이 兩 音들은 그 使用 效能이 △  
보단도 前에 消失된것이 斷定되는자이다.

一、初聲合用則並書 終聲同

例 ㄱ(字) 불(不)

一、一上 ㄷ 附書初聲之下

例 마고고구교

一、丨丨丨 附書於右

例 기가거가거

一、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  
促急

例 二이則즉上聲聲성이오

一、牙舌唇喉之字 通用於漢音

이것은 齒音 以外에는 全部 漢音과 通用할수 있다는  
것을 말한것이니, 「漢音齒聲有齒頭門齒之別」이라 하여, 그  
表記文字를 다르게 한것으로 보아 漢字音을 얼마나 많  
이 正音 製定 當時에 重要視하고 있었는가를 窺知하  
게 하는것이라고 보겠다.

以上으로 成文上의 規定을 알수 있으나, 다시 그  
記載 內容에서 「ㄱ ㄷ ㅂ ㅅ ㅈ ㅊ ㅋ ㆁ ㆆ」等을 所有格的符號로 使  
用한 特徵이 있다. 例示하면

- ㄱ…… 如洪 ㄱ字 如穰 ㄱ字
- ㄷ…… 如君 ㄷ字 如君 ㄷ字
- ㅂ…… 如侵 ㅂ字 如覃 ㅂ字
- ㅅ…… 如料 ㅅ字 如漂 ㅅ字
- ㅇ…… 如快 ㅇ字 如步 ㅇ字

와 같이 一定한 規則이 이 用法을 支配한다。即

上字의 終聲 그 符號

ㅇ……………  
 ㄴ……………  
 ㄷ……………  
 ㅁ……………  
 ㅂ……………  
 ㅇ……………

로 되고, 이것을 이 訓民正音 發聲表와 對照하면,

牙 舌 唇 齒 喉

(全) ㄱ ㄷ ㅂ ㅅ ㅎ  
 (次) ㅋ ㆁ ㆁ ㆁ ㆁ  
 (不) ㅇ ㄴ ㄷ ㅁ ㅂ ㅎ

ㅁ (不)에서부터 (全)으로 音이 移轉된것이 分明하다。

同時에 그 反對의 法則은 絶對로 허락하지 않았다。

即 如業字 如挾字 如即字 如欲字

와 같은것은 所有格的 符號를 使用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지금에 所用없이 된자와 그렇지 않으면 한  
 解決을 기다리고 있는 問題거리의 글자를 아래에 列  
 舉하므로써, 이 體 內容의 簡單한 紹介를 마치려 한  
 다. ㅇ(多, 矣, 者)들 音의 終聲) ㅇ(히역使)

ㅇ(흐, 於, 安)들 音의 初聲) ㄷ(曰, 不, 八)의 漢字 終聲)

ㅇ(御, 牙, 語)들의 初聲) ㅇ(正, 終, 情)들의 終聲)

ㅁ(流, 有, 漂)들의 終聲) ㅂ(수비, 말바)

ㄴ(다나나라) ㅎ(乎, 洪)

ㅁ(빛志) ㅂ(用的意)

△(而, 然, 日) ㄷ(서름耳)

(二五頁에서) ㅁ(不)에서부터 (全)으로 音이 移轉된것이 分明하다。  
 다. 백작은 칼을 쥐고 무엇이냐고  
 리 리 질녀야 대답이 없다. 미친  
 것 같이 사면팔방으로 공중에 갈  
 질을 하고 돌아다니었다. 그동안  
 에 부인은 마음을 진정하고 곳시  
 가로 길떠날 준비를 차리게 하였다.

그러나 부인이 몇가지 물건집을  
 차서 문밖으로 날으러 할케, 성에  
 는 사방에서 불꽃이 일어 나며, 타  
 을 냈다. 백작이 무서움이 솟아지  
 서서 피가 머리에 모혀나 사는 것  
 이 귀치 안흔 생각이 낫든지 초  
 를 가지고 성구석 모든 나무관장

에다 불을 질렀다. 부인은 불행한  
 남편을 구하라고 여러 사람을 불  
 러들여 보냈다. 백작은 보기도 참후  
 하게 죽어버렸다. 백작의 백골은  
 동네사람의 손으로 옮겨졌는데, 그방  
 거지 노파더러 물어 이르나라고 하든 그  
 구석에 지금도 노혀 있다. (끝)



# 한글 바루 잡아 쓰기 힘익

◇오른쪽 옆  
에 쓴 것  
은 따름  
범 통일  
안대 토 쓴  
것.

## 『로칼로』거지 로파

### 크라이스트 지음

알프스 산 기슭 이탈리아 북방로  
카노 지방에 어느 백작이 오랜 청  
한채를 가졌었다. 지금도 창·꺼  
할드에 서 오는 사람은 그곳에 거  
친 성이 풀밭이 되다 심히 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 청안에는 우  
층 넓은 방에 병든 로파가 집을

어더서 바다에 깔고 누워 있었다  
그 로파는 어더먹으려 와서 문간에  
섰다가, 청안에 있는 녀편네의 인  
청으로 잠자리를 어든 것이다. 그때  
침 백작이 산양하고 돌아와서 천천  
과 같이 총을 갖다 두라고 이 방에  
를 올라왔다. 그 로파를 보고서 삼  
청이 좋지 못하야 그 누어워 있는  
구석에 서 내려나서 난로 뒤로 가  
라고 명령하였다.  
로파는 내려나다가 집행이가 마  
루바닥에 썩 미끄러지며, 허리뼈를  
단단히 댓다 밟았다. 그래도 어땡게  
야 내려나서 주인 백작 말삼대로  
방안을 가로지나 난로 뒤까지 가  
기는 하얏스나, 연해 알는 소리를

하더니, 툭 쓸러지며, 곧 숨이 너념  
머갔다.  
그 뒤 수년 지나서, 백작이 천천  
쟁이며 흥년 외담에 재청이 곤난한  
때, 어땡 풀로렌스 무사가 차키와서  
홀청한 성좌척가 마음에 드니, 사  
고심하고 말하였다. 백작의게는 청  
매매가 중대한 사건이라, 부인의게  
일너서 손님을 전에 말한 넓은 방  
에 재우게 하얏다. 그 방은 홀청  
히 보기 좋게 꾸며 놓았었다.  
한밤중쯤 되여, 그 무사가 얼골  
이 새파래가지고, 별별 델며 백작  
내외 있는대로 나려와서 자괴자  
든 방에 괴상한 것이 있다고 말하  
얏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턱연

무엇이 짐우에 잇는것처럼 버척버  
 석 소래를 내며, 방 한구석에 처니  
 어 처, 말자국 소래를 드르면 빛  
 들비 들어 말못된 사람이  
 방을 가로 루 지나, 난로 뒤에 가 처  
 알는 소래를 하야가며 잣바지는 모  
 양이더라 하고, 이것이 결코 꿈도  
 아니요, 거짓도 아니라고 단언하는  
 데, 백작 내외는 맘에 어떻게 놀  
 랫는지 몰랐다.

백작이 속으로는 겁이 나는데,  
 무슨 까닭인지 자기도 몰으나, 짐  
 족트 쾌활한채 하면서 무사를 비롯  
 고, 그리하고 니려나 처, 손님 말씀  
 이라고, 그 방에 갖처 가 처 하로  
 밤 지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사는 케발 고만 두어 달나  
 하고, 백작의 침실 안락교의 우에  
 처 하로밤을 드새고, 잇튼날 식전  
 에 총총히 행구를 수습하야가지고  
 작별하고 갔다.  
 이에 변이 남의 이목을 놀냈었  
 다. 백작의게 입맛은 일은 그 다  
 음에 청 사려오는 사람마다 뒤를  
 세게 된것이다. 괴상스럽게 하인사  
 이에도 그 방에는 밤중이면 독갑  
 이가 나온다는 소래가 많았었다.  
 백작은 무삼 단연한 수단으로 이  
 되지 못한 풍경을 업시하라고 어  
 느날 밤에 자기가 친히 시험하야  
 보기로 결심하였다.

백작은 그날 어둑어둑할 때부러 그

방에 자리를 깔게 하고 눈도 붓  
 이 치지 아니하고 밤들기를 기다렸다.  
 청 밤중이 되더니, 과연 무슨  
 석버석 소래가 들리었다. 그는  
 더께 놀냈는지 몰랐다. 그것은  
 연 어던 사람이 짐우에 처 니려 처  
 가지고 방을 가로 루 건너 난로 뒤  
 로 가 처, 목에 가래가 살흐며 한  
 숨을 쉬고 턱 쓰러지는 모양이엇  
 다.  
 이 잇튼날 식전에 부인은 백작이 나  
 려오는것을 보고 결과가 어더하냐  
 고 무른즉, 백작은 겁나 휘황스러  
 운 눈으로 근처를 도라보고, 문을  
 잠그고 나 처, 독갑이 이약이가 참  
 말인것을 말하였다. 부인은 다시 한

번 놀<sup>렸</sup>냈다. 그러나 이 일을 다른  
 사람의<sup>에</sup>게 말 말고, 자기와 갖<sup>가</sup>치한  
 번<sup>냉정</sup> 냉정하게 시험하야 보자고 청<sup>청</sup>  
 하<sup>였</sup>었다.  
 이 잇는날 밤에 백작 내외가 충실한  
 하인 하나를 다<sup>테</sup>리고 가<sup>쳐</sup>서 셋이나  
 사실로 그 괴상스러운 소<sup>리</sup>래를 드<sup>들</sup>  
 었<sup>었다</sup>. 그들 마음에는 아<sup>무</sup>모<sup>런</sup>케 하<sup>하</sup>  
 든지 이 청<sup>청</sup>을 녀<sup>녀</sup>날 생<sup>생</sup>각이 잔<sup>잔</sup>뜩<sup>뜩</sup>  
 들<sup>들</sup>었<sup>었다</sup>. 그래서 하인 눈<sup>앞</sup>에<sup>쳐</sup>는 자  
 기<sup>기</sup>네 속에 잇<sup>있</sup>는 무<sup>무</sup>서운 마<sup>마</sup>음을 진  
 청<sup>청</sup>하고 이 괴<sup>상</sup>한 소<sup>리</sup>래원인은 구  
 경<sup>경</sup>반<sup>반</sup>전<sup>전</sup>될<sup>것</sup>인데, 청<sup>청</sup>녕<sup>녕</sup>코 무<sup>무</sup>슨 되<sup>되</sup>지  
 못한<sup>것</sup>일<sup>테</sup>지만, 사람이 미<sup>미</sup>치<sup>치</sup> 생각  
 못한<sup>것</sup>이<sup>리</sup>라고 애<sup>애</sup>를 외<sup>외</sup>쳐<sup>쳐</sup> 말<sup>말</sup>하<sup>하</sup>였<sup>었다</sup>.

셋<sup>셋</sup>재<sup>재</sup>날 백작 내외가 사실 진<sup>상</sup>상을 근  
 본<sup>본</sup>덕<sup>덕</sup>으로 궁<sup>궁</sup>구<sup>구</sup>하<sup>하</sup>려<sup>려</sup>고 어<sup>어</sup>마<sup>어</sup>어<sup>어</sup>마<sup>어</sup>하면  
 처<sup>처</sup>서<sup>서</sup> 증<sup>증</sup>계를 을<sup>을</sup>나<sup>나</sup>간<sup>간</sup>즉, 그 방<sup>방</sup>문<sup>문</sup> 압<sup>압</sup>  
 헤<sup>헤</sup>에<sup>에</sup> 우<sup>우</sup>연<sup>연</sup>히 사<sup>사</sup>슬 풀<sup>풀</sup>어<sup>어</sup>놓<sup>놓</sup>은 개<sup>개</sup> 한  
 마<sup>마</sup>리가 잇<sup>있</sup>었다. 그들은 무<sup>무</sup>슨 별<sup>별</sup>리<sup>이</sup>한  
 유<sup>유</sup>도 업<sup>업</sup>지<sup>지</sup>만 생<sup>생</sup>명 잇<sup>잇</sup>는<sup>것</sup>이니, 자  
 기<sup>기</sup>편<sup>편</sup>을 맨<sup>맨</sup>드<sup>드</sup>려 두<sup>두</sup>리<sup>리</sup>라<sup>는</sup> 생<sup>생</sup>각<sup>이</sup>속  
 에<sup>에</sup> 처<sup>처</sup>서 난<sup>난</sup>듯<sup>이</sup> 개<sup>개</sup>도 함<sup>함</sup>께<sup>께</sup> 다<sup>다</sup>리<sup>리</sup>고 방  
 안<sup>안</sup>을 드<sup>드</sup>러<sup>러</sup>와<sup>와</sup>다. 두<sup>두</sup>자<sup>자</sup>루 초<sup>초</sup>스<sup>스</sup>불<sup>불</sup>을 책  
 상<sup>상</sup>우<sup>우</sup>에 처<sup>처</sup>쳐<sup>쳐</sup> 노<sup>노</sup>고 부<sup>부</sup>인은 자<sup>자</sup>리<sup>리</sup>옷  
 을 바<sup>바</sup>꾸어 입<sup>입</sup>지<sup>지</sup>도 아<sup>아</sup>니<sup>니</sup>하고, 백<sup>백</sup>작  
 은 장<sup>장</sup>숙<sup>숙</sup>에 쓰<sup>쓰</sup>내<sup>내</sup>온 칼<sup>칼</sup>과 특<sup>특</sup>혈<sup>혈</sup>포<sup>포</sup>를  
 옆<sup>옆</sup>에 놓<sup>놓</sup>고 열<sup>열</sup>한<sup>한</sup>시<sup>시</sup>가<sup>가</sup>량 되<sup>되</sup>어<sup>어</sup>쳐<sup>쳐</sup> 각  
 각<sup>각</sup> 침<sup>침</sup>상<sup>상</sup>우<sup>우</sup>에 허<sup>허</sup>리를 걸<sup>걸</sup>쳐<sup>쳐</sup>다. 그리  
 하고 될<sup>될</sup>수 잇<sup>잇</sup>는<sup>대</sup>로 이<sup>이</sup>약<sup>약</sup>이<sup>를</sup> 해  
 가<sup>가</sup>며 기<sup>기</sup>운<sup>운</sup>을 돌<sup>돌</sup>으<sup>으</sup>려<sup>려</sup> 하<sup>하</sup>는데, 개

는 머<sup>머</sup>리와 발<sup>발</sup>을 한<sup>한</sup>대 모<sup>모</sup>우<sup>우</sup>고 방  
 한<sup>한</sup>중<sup>중</sup>간<sup>간</sup>에 누<sup>누</sup>운<sup>운</sup>채 잠<sup>잠</sup>이 드<sup>드</sup>러<sup>러</sup>다.  
 얼마 안<sup>안</sup>이 지<sup>지</sup>나<sup>나</sup>쳐<sup>쳐</sup> 한<sup>한</sup>밤<sup>밤</sup>중<sup>중</sup>이 되  
 자, 그 무<sup>무</sup>서<sup>서</sup>운 버<sup>버</sup>석<sup>석</sup>버<sup>버</sup>석<sup>석</sup> 소<sup>소</sup>래<sup>래</sup>가 또  
 들<sup>들</sup>니<sup>니</sup>기 시<sup>시</sup>작<sup>작</sup>하<sup>하</sup>였<sup>었다</sup>. 눈<sup>눈</sup>에 보<sup>보</sup>이<sup>이</sup>지<sup>지</sup>는  
 아<sup>아</sup>니<sup>니</sup>하<sup>나</sup>, 누<sup>누</sup>가 방<sup>방</sup>구<sup>구</sup>석<sup>석</sup>에<sup>에</sup> 처<sup>처</sup>서 집<sup>집</sup>행<sup>행</sup>이  
 집<sup>집</sup>고 니<sup>니</sup>러<sup>러</sup>나<sup>는</sup>데, 그 발<sup>발</sup>미<sup>미</sup>레<sup>레</sup>쳐 집<sup>집</sup>짚  
 이 버<sup>버</sup>석<sup>석</sup>버<sup>버</sup>석<sup>석</sup>한다. 그리<sup>그</sup>하고 그 발  
 자<sup>자</sup>국 소<sup>소</sup>래<sup>래</sup>가 나<sup>나</sup>기 시<sup>시</sup>작<sup>작</sup>한다. 피<sup>피</sup>라  
 피<sup>피</sup>라... 이 때<sup>때</sup> 별<sup>별</sup>안<sup>안</sup>간 벌<sup>벌</sup>떡<sup>떡</sup>니<sup>일</sup>  
 러<sup>러</sup>난 개<sup>개</sup>는 귀<sup>귀</sup>를 모<sup>모</sup>우<sup>우</sup>터<sup>터</sup>니, 대<sup>대</sup>번 지<sup>지</sup>짚  
 으<sup>으</sup>며, 오르<sup>오르</sup>링<sup>링</sup>거<sup>거</sup>리며 현<sup>현</sup>연<sup>연</sup>사<sup>사</sup>람<sup>람</sup>이 케  
 몸<sup>몸</sup>가<sup>가</sup>가<sup>가</sup>이 오<sup>오</sup>는<sup>것</sup>처럼 뒷<sup>뒷</sup>거<sup>거</sup>름<sup>름</sup>을 치  
 며 난<sup>난</sup>로 잇<sup>잇</sup>는<sup>대</sup>를 피<sup>피</sup>한다.  
 부<sup>부</sup>인<sup>은</sup> 이 모<sup>모</sup>양<sup>을</sup> 보<sup>보</sup>자, 몸<sup>에</sup>슬  
 음<sup>이</sup> 외<sup>외</sup>쳐<sup>쳐</sup>

(二二頁에 繼續)

# 조선어학도서전람회

—한글 一八八회 기념—

이것을 지난 십이월호에 실었어야 할 것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밀우어와서, 이제 여기에 실게 된다. 조선어학 도서전람회란 것이 실로 조선 유자(有史) 이래 처음 있는 것인 만큼, 이 역사적 전람회의 사실을 그저 소홀히 들릴 수 없는 터이므로, 이 기록을 영구히 전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의미있는 일로 안다. 그리고 역시 지면관계로,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적지 못하며, 또 당시 출품된 서적도 다 넣지 못하게 된 것은 적지 않은 유감으로 안다.

조선어학회에서 지난해 시월 이십칠일부터 송현동 그친 보성전문학교에서 조선어학 도서전람회(朝鮮語學圖書展覽會)를 열었다. 시간은 매일 오전 십시로 오후 오시까지로 하였

다. 이 전람회에 출품된 서적도 예상하던 이상으로 상당히 많았는데, 장소의 협잡과 단시일의 준비로 말미암아 다소 경돈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전람회 임원들의 불면 불휴의 노력으로 이만한 성취이라고도 들어내게 되었다.

전람회의 상황은 대개 아래와 같다. 이번 수집한 도서의 종류는

- 一、古典部(正音類、諺解類、經書類、文學類、字書類、譯語類、雜書類)
  - 二、新書部(文法類、教科書類、論著類、雜誌類、新聞類)
  - 三、辭典部(朝鮮語、漢文、外國語)
  - 四、叅考部(言語學、聲音學、論述)
  - 五、材料部(本會記錄、官邊記錄、社會)
  - 六、實驗聲聲音部
  - 七、辭典編纂部
  - 八、雜種部(統計表、地圖、寫眞、聲音圖、世界文字、速記法符號)
- 등이다. 그리고 이것을 진열한 장소는 모두 여섯방으로 나누었는데,

**첫재방(第一室)**에는 고전(古典)、문법(文法)、교과서(教科書)、관보(官報)、신문(新聞)、잡지(雜誌)、만몽어(滿蒙語) 등이 진열되었는데, 고전으로

(1) 정음류(正音類)에

- 訓民正音 (世宗大王 御製)
- 韻解訓民正音 (英祖 二六年 申景濬著)
- 諺文志 (純祖 二四年 柳僖著)
- 東文字母分解(高宗 元年 姜璋著)
- 等十一 김이요, (2) 언해류(諺解類)에
- 金剛經三家解 (世宗 命撰)
- 六祖壇諺解 (未詳)
- 楞嚴經諺解 (世祖時)
- 妙法蓮華經諺解 (世祖 八年)
- 圓覺經諺解 (世祖 十年)
- 永嘉集諺解 (世祖時)
- 七大萬法釋 (未詳)
- 馬經諺解 (仁祖時 李曙撰)
- 栗谷先生大學諺解 (宣祖 三年撰)
- 救荒撮要諺解 (明宗時)
- 朴通事新釋諺解 (肅宗 三年)
- 御製常訓諺解 (英祖 二十一年)
- 女四書諺解 (英祖時)
- 續明義錄諺解 (正祖 二年 金致仁撰)
- 兵學指南 (正祖 十一年)
- 重刊老乞大諺解 (正宗時 李洙撰)
- 十九史略諺解
- 新刊增補三略諺解
- 孝經諺解 (哲宗時)

諺解 圖像 童蒙先習

百聯抄諺解

등 一백 二十一 五집이요, (3) 경서류

(經書類)에

南明集 (世祖時 刊)

佛說阿彌陀經 (世祖 九年 刊)

禪家龜鑑

四法語 (世宗 十二年)

佛頂心陀羅尼經 (成宗 十六年)

蒙山和尚法語 (中宗 十二年)

內訓 (中宗時)

五大集 (明宗 五年)

隨求咒 (明宗 二十年)

南華經 (明宗時)

佛說大報父母恩重經 (宣祖 二十年)

佛頂心陀羅尼經 (仁祖 九年)

雪峯重刊真言集 (宣祖 二年)

春秋正音

周易正音

詩傳正音

등 一 二十 五집이요, (4) 문학류(文學

類)에

龍飛御天歌 (世宗 二十七年)

月印千江之曲 (世宗時)

松江歌詞 (鄭澈 作、肅宗時 刊)

陶山歌詞 (宣祖時)

栗谷先生高山九曲歌 (明宗時)

海東樂府 (宣祖時 白仁傑 撰)

海東歌謠

永 言

女唱歌謠

등 十一집이요, (5) 모어류(譯語類)에

濟語老乞大

重刊捷解新語 (宣祖時 康遇聖 撰)

同文類解 (英祖時)

譯語類解 (肅宗 十六年 金敬俊 撰)

蒙語類解 (正祖時)

등 九집이요, (6) 자서류(字書類)에

三韻通考 (世宗時)

訓蒙字會 (中宗 二二年 崔世珍 著)

東言考略 (朴慶家 著 李朝中葉)

三韻聲彙 (英祖 二七年 洪啓禧 著)

華東正音通釋韻考 (正祖 一一年 朴性

源 著)

奎章全韻 (正祖時)

全韻玉篇 (正祖時)

音韻反切彙編

字類註釋

蒙諭篇

등 三十집이요, (7) 잡서류(雜書類)로

舍利靈應記 (世祖時 金守溫 撰)

悉曇章

臺山御帖 (世祖 九年)

五倫行實圖 (世祖 二一年 李秉模 撰)

樂學軌範 (成宗 六年 成俔 撰)

東國文獻備考(英祖 四六年 洪鳳漢 撰)

山林經濟 (正祖時 丁若膺 著)

字恤典別 (正祖 七年)

諭中外大小臣庶論音 (正祖 六年)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論音(憲宗 五年)

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論音 (高

女節 宗 十八年)

五洲衍文長箋散稿 (哲宗時 李奎景 著)

吏文雜例

題音

儒胥必知

均如傳

三才要義

이언(易言)

등 一백 九十五집이요, (8) 외국어의

로 조선어에 관한 저서로

Dall; Historie de l'eglise de Corée

(1874) (朝鮮宗教史)

交隣須知(德川時代 雨森芳洲 撰)

崔忠傳(明治初年)

朝鮮國職房話 (明治初年)

韓佛字典 (一八八〇) 佛國宣教會 撰

Grammaire Coreenne (一八八一年 (佛國宣教會 撰)

韓英文法 (一八八九年 元杜尤 撰)

英韓字典 (一八九〇年 元杜尤 撰)

拉韓字典 (一八九一年 香港에서 出版)

Corean Manual (一八九三年 卍일 著

辭課指南 (一八九五年 卍일 著)

韓英字典 (一八九八年 卍일 著)

法韓字典 (一九〇一年 卍일·엘레브 著)

同文字典 (明治四二年 漢字統一會 撰)

等 二십 七점이요, 다음으로 문법에

관한것으로

국문정리 (建陽 二年 리봉유 著)

大韓文典 (隆熙 二年 俞吉濬 著)

國語文典音學 (隆熙 二年 周時經 著)

國語文法 (隆熙 四年 周時經 著)

말의소리 (大正 三年 周時經 著)

等 二십 八점이요, 다음으로 교과서

에 관한것으로

國民小學讀本 (光武 二年 學部 編纂)

尋常小學讀本 (光武 十年 學部 編纂)

國語讀本 (隆熙 元年 學部 編纂)

等 十 七점이요, 다음으로 잡지로

朝陽報 (光武 十年)

親睦 (光武 十一年)

西北學會月報 (隆熙 二年)

畿湖學會月報 (隆熙 二年)

大韓協會月報 (隆熙 二年)

가정잡지 (隆熙 二年)

少年 (隆熙 二年)

교육월보 (隆熙 三年)

等 三十一점이요, 다음으로 관보(官

報)에는 건양원년(建陽元年)부터 융희

사년까지의 한국정부의 관보(官報)六

十 五책이 있었고, 다음으로 신문

조선크리스도신문 (建陽 元年)

대한크리스도신문 (光武 二年)

독립신문 (建陽 二年)

皇城新聞 (光武 二年)

매국신문 (光武 二年)

等 十六점이요, 다음에는 만몽어(滿

蒙語) 十九점이 있었다. 벽 한편에

는 이각정(李珪卿)이 철경(李喆卿)의

한글로 쓴 촉자 셋이 걸리었고,

한편에는 여진문자(女眞文字)의 비문

답본을 붙여있으며, 한쪽에는 조선

고대에 활자로 박은

茅鹿門文抄 (韓構字)

啓蒙集 (壬辰字)

陸奏約選 (丁酉字)

大學 (洪武正韻體)

등이 있어 참고로 삼았으며, 문밖으

로 벽우에는 조선말의 성음도(聲音

圖) 十 五점, 세계 각국 문자(文

字) 二十 五점, 속기술 연혁표(速

記術沿革表) 四점이 있고, 고대에 책

을 박던 목판(木版) 一련도련청 二

十五장이 남아있고, 송기주(宋基柱)

씨의 발명한 한글 타입이라이드가 그

결에 진열되었다.

둘재방 (第二室)은 참고실(參考

室)이니, 작년 시월 이십구일 본회

에서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케

정할 때의 기록 및 한국시대에 국문

연구회(國文研究會) 위원 보고서로 부

러 총독부 학무국에서 三四차 철자

법 개정 초안등, 통일안이 완성되기

까지의 회의록, 초안 기타 필기, 등

사, 인쇄등 여러가지 재료가 五十



(新刊書籍室)이니, 여기에는 일반 서적, 잡지중에 한글 철자법으로 쓴 것만 진열되었는데, 실내가 협잡하므로 다 진열되지 못하고, 일부분만 진열된 것이 유감이다. 이것만으로도二百三十종의 다수로, 나날이 출간되는 서적이 이렇게 통일안으로 향하여가는 것을 보고 누구나 놀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

이 전람회에 진귀한 서적을 출품한 이는 다음과 같다.

- 白斗鏞氏 (翰南書林)
- 金永完氏 (光東書館)
- 李殷相氏
- 權相老氏
- 崔南善氏
- 金瑗根氏
- 君芮彬氏
- 洪淳赫氏
- 朴勝彬氏
- 延禧專門學校
- 中央佛敎專門學校
- 培材高等普通學校
- 敎新學校

天主敎會  
耶穌敎書會  
中央印書館

漢城圖書株式會社

등이며, 본회 회원중으로는 李熙昇, 李秉岐, 權惠奎, 金允經, 崔鉉培, 李允宰, 李克魯, 方鍾鉉, 李浩盛, 朴顯植, 張志暎, 金炳濟 씨 및 朝鮮語學會의 장서등인데, 고서 부분에는 이회승 이병기 양씨의 출품이 가장 다수에 달하였다.

이 전람회에 각 방면으로 원조하여 주신이가 많으므로, 일일이 다 들 어 말할수 없으나, 특별히 필요한 것을 기증하여 주신 아래 여러분에게 더욱 감사함을 말지 않는다.

東亞日報社 出品圖書目錄 一千部  
朝鮮日報社 展覽會의 아치(正門)  
朝鮮中央日報社 展覽會로스타 五百張

그리고 입장자는

첫날 一백 七十 三人  
둘째날 四백 七十 七人  
셋째날 四백 三十 五人  
三일 총계 一천 八十 五人

이 중에는 멀리 평양, 대구, 함흥에 서까지 일부러 관람하려고 오는분들도 많았다.

이렇게 대성황을 이루고, 단 이들동안은 너무 짧으니 하두를 더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본디 예정한 일자에서 하루를 더 연기 하여 이십 구일에 무사히 폐회하였다.

### 急 告

本誌는 이번 體裁를 變更함에 따라, 印刷費 其他가 從前보다 倍增加게 되나이다。本誌의 代金을 부득이 아래와 같이 改定하오니, 愛讀 諸氏는 恕諒하시기를 바라나이다。

一個月 七 錢  
三個月 二十 錢  
六個月 四十 錢  
壹個年 七十五 錢



# 본회 기사

## 신년연례원례회

지난 십 일월 십일 오후 삼시에 원례회를 열고, 정인침씨의 협성음(實驗聲音)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 임시총회

지난 십이월 일 오후 삼시에 임시총회를 열고, 종래에 준비하여 오던 표준(標準語)사정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一, 일자는 일월 이일부터 오 일까지로.  
 一, 회의장소는 충청남도 양온천(溫陽溫泉)으로.  
 一, 의원은 본회 회원에만 한 가지 아니하고, 회원 이외에 각 도별(道別)로 하되 그중 경성 및 근기(近畿)를 위는 권수의 반수 이상을 하기로 인선할것.

## 정인침씨의 강연

십이월 이십사일 오후 칠시 천도교 청년능맹의 청빙을 받아, 「한글 맞춤법의 대하」란 연례 강연이 있었다.

# 朝鮮語學會規則

- 一 本會는 朝鮮語學會라 함
- 二 本會는 朝鮮語文의 研究와 統一을 目的함
- 三 本會는 京城에 둠
- 四 但 地方에는 支會를 두기도 함
- 五 本會의 入會는 本會員의 推薦으로 幹事가 審査한 後에 許諾함
- 六 但 入會를 許諾한 때에는 入會金 壹圓을 내어야 함
- 七 本會會員은 每年 會費 貳圓을 負擔함
- 八 本會員으로서 一年 동안 한 번도 모임에 出席이 없고 會費를 내지 아니한 이는 別會員으로 編入함
- 九 但 退會를 願하는 이는 幹事長에게 退會를 請하여야 함
- 十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贊成하는 이는 本會의 贊成員으로 함
- 十一 本會에는 任期 一年의 幹事 三人을 두되, 그중에서 幹事長 一人을 互選하여 本會를 代表하게 함
- 十二 本會는 每年 四月에 定期總會를 열되, 本會員 三分之一 以上의 出席이 要함
- 十三 但 定員에 達하지 못할 때는 在京 會員數의 三分之一 以上으로도 開會함을 得함
- 十四 必要한 때에는 臨時總會를 열기도 함
- 十五 本會는 每月 한번씩 (동재 土曜日) 月例會를 열음
- 十六 本會는 本會의 目的을 이루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行함
  - 가 講演會
  - 나 講習會
  - 다 講義錄, 學報, 研究叢書, 調查報告書, 關係 古文 獻, 其他 必要 書籍의 出版
- 十七 本規則을 고치려 할 때에는 總會의 決議를 얻어야 함
- 十八 本規則에 未備한 것은 幹事會 또는 總會의 決議로 行함

# 남은 말씀

해가 바뀌임과 한가지 본지의 얼골도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내용도 앞으로 더욱 충실하게 하려합니다. 이 달호를 게재 때에 내지 못하고, 이렇게 늦어진 것은 심히 죄송합니다.

昭和十年十二月廿九日 印刷  
 昭和十年一月一日 發行

【定價 七錢】

京城府花洞一三九番地

編輯兼 發行人 李 允 宰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印刷人 金 鎮 浩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花洞一三九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京城一〇三六番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 本會推薦良書

(一其) 나날이 가는 새로운綴字로 된 책들

李允宰	金台俊	彼得譯	姜炳周譯	尹石重	尹石重	金泰午	張貞心	張貞心	毛允淑	梁柱東	金億	李殷相	田榮澤	李光洙	李光洙	李光洙	韓仁澤	沈薰	李泰俊
文藝讀本一、二	朝鮮歌謠集成	童話研究法	新撰童話法	잃어버린대기(童謠)	尹石重童謠集	雪崗童謠集	琴線(詩)	주의勝利(詩)	빛나는地域(詩)	朝鮮의脈搏(詩)	忘憂草(詩)	鷺山詩調集	聖劇殉教者	홍(小說)	李舜臣(小說)	端宗哀史(小說)	旋風時代(小說)	永遠의微笑(小說)	밤(小說)
六〇	八〇	二五	二〇	五〇	八〇	八〇	四〇	七〇	九〇	五〇	五〇	七〇	五〇	二〇〇	一六〇	二〇〇	一三〇	八〇	價定
〇六	〇八	〇二	〇四	〇四	〇六	〇四	〇四	〇六	〇六	〇四	〇四	〇六	〇六	二四	一二	一二	一〇	一〇	料送
方信榮	徐相天	趙憲泳	襄成龍	襄成龍	韓稚振	韓稚振	韓稚振	柳澧基	金永義	宋鴻	金億	金克培	李順鐸	襄恩希	申明均	李允宰	金在喆	權憲奎	李殷相
朝鮮料理製法	現代鐵棒運動法	通俗漢醫學原論	朝鮮經濟現在와將來	朝鮮農村研究의準備知識	社會學概論	新心理學概論	宗教改革史要	基督敎史	松隱小論文集	現代實用書簡文	現代模範書翰文	한글鐵筆自習書	世界一周記	방애인소견	周時經先生遺稿	聖雄李舜臣	朝鮮演劇史	朝鮮留記略	朝鮮史話集
一、二〇	六〇	三、〇〇	五〇	三〇	一、二〇	一、二〇	一、一〇	一、二〇	四〇	九〇	七〇	五五	一、二〇	二〇	一〇〇	二五	一、五〇	七〇	一〇〇
一〇	一〇	〇六	〇四	〇二	〇八	〇八	〇八	一〇	〇四	〇四	〇六	〇四	一〇	〇二	〇六	〇二	〇八	〇四	料送

◇다이내적하應需 速迅 면시하文注 로部版出本 을籍書 上以◇



李殷相著

# 鷺山時調集

再版發行!!

泊來크로스·布衣·純洋裝  
金箔·銀箔·美麗豪華裝幀

四六判二二〇〇頁  
送料書留一七六錢

朝鮮新文學史上! 一大光明塔의 建成!

朝鮮文人 詩歌作品中에 霸王인 鷺山時調集

初版——賣盡! 再版——出現!

## 重 要 內 容

가는곧마다·흐르는봄빛·달알에서서·쏟쏟한그날  
꿈은지나가고·松都노래·金剛行·兩章時調試作篇  
等凡八部에 나누어 總百十二題 三百首에 珠玉。  
이는 著者가 四千日間心血을 傾注한 時調七百餘首中  
에서 추려낸 努力에 結晶品이다。

昭和十九年四月十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日(每月一日一回發行)

한글 第三卷 第一號

東京府城京替振  
志城六七番  
三洞六番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